



기획시리즈



임경빈
전 서울대 교수

조경수목산책 (Ⅱ X Ⅱ)

— 철 쪽 —



▲진달래 정원, 전북 익산시내, 1989. 4. 22

1. 철쪽과 진달래

철쪽과 진달래, 서로 비슷한 키 낮은 나무이다. 진달래는 초봄에

우리나라의 산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꽃을 단다. 그 꽃은 너무나도 황홀하다.

진달래는 잎이 피기 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눈이 녹기 시작하는 초봄에 산을 단장한다. 철쪽은 꽃이 필 때 잎도 나 있으므로 꽃 피는 때는 진달래보다 한 달 또는



▲산을 불태워 버린다는 진달래. 북한산. 1985. 4. 9



▲향긋한 진달래. 필자의 집에서. 1983. 4

한 달 반 쯤 늦어진다. 우리나라의 산은 한 해 동안, 두 번 불에 탄다. 봄철에는 진달래와 철쭉 때문에 타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으로 또 한 번 탄다. 그래서 우리의 산천을 '금수강산'으로 말한다. "가을 단풍에 화상을 입었노라" 하는 것을 과장된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있을 법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문화적인 심성이다.

두보(杜甫)의 절구(絶句)에 다음이 있는데 "꽃이 불탄다"는 표현이 있다.

강벽조유백 江碧鳥逾白
 산청화욕연 山青花欲燃
 금춘간우과 今春看又過
 하일시귀년 何日是歸年

강의 감벽에 새는 더욱 더 희고,
 산의 푸름에 꽃은 탈 것만 같다.
 이번 봄도 그냥 그냥 가

버리고,
 고향으로 갈 날은 어느때 쯤 인가.

이때 산을 불타게 할 꽃은 진달래나 철쭉밖에 없지 않을까? 불꽃과 같은 꽃을 달리 찾기는 어렵다.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화염의 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초봄에 꽃 피는 진달래는 잎이 비교적 좁은 긴 타원형이고, 가지에 어긋나게 붙는다. 이에 반해서 철쭉은 잎이 넓고 둥근 편이며 난형(卵形)처럼 보인다. 잎이 역시 어긋나지만 잎들이 가지 끝에 모여서 윤생(輪生, 수레바퀴처럼 돌려 나는 모습)하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잎의 모양과 착생 양식(着生養植) 그리고 꽃피는 시기의 차이로써 진달래와 철쭉은 서로 식별이 될 수 있다. 철쭉보다는 진달래가 초봄을 장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친근한 맛이 있고,

진달래는 감미로운 시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철쭉은 진달래에 선수를 빼앗긴 셈이지만 철쭉 꽃밭의 장관의 표현은 말로 하기 어렵다.

내가 살던 고향에 있어서는 진달래를 참꽃으로 말했고, 철쭉을 진달래로 말했다. 따라서 철쭉이란 말은 그다지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은 나무 이름에 대한 지역 사투리에 지나지 않는다.

진달래나 철쭉은 모두 철쭉과에 소속되는 나무이고 또 함께 철쭉 속에 들어간다. 철쭉과를 학술적으로는 에리카시이(Ericaceae)라 하고, 철쭉 속(또는 진달래속)을 로오도덴드론(Rhododendron)속으로 말한다. 이때 로오돈(rhodon)이란 희랍어로서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덴드론(dendron)은 '나무'를 뜻한다. 그래서 '로오도덴드론' 하면 '붉은 꽃을 다는 나무'란 뜻이다. 붉지 않고 흰 꽃, 노란 꽃 등이 있으

나 대부분은 붉은 꽃을 단다.

한자 명칭은 진달래는 두견(杜鵑) 또는 두견화이고 철쭉은 철쭉(鐵鵲)이다. 진달래를 두견화로 말하는 데에는 전설같은 것이 있다.

두견은 새 이름이다. 일본말은 호도도기스(はととぎす)이다. 두견은 다른 한자명으로 자규(子規), 북쪽 호(胡)국에서 온, 말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제, 두귀를 좇듯 세우고 그 쪽을 바라본다(胡鳥依北風)는 시의 구절이 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달픈 심성을 읽어볼 수 있다.

어떤 시인도 “사시나무에는 슬픈 바람(白楊多悲風)이 잘 일어나고 스산한 분위기가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한다(簫蕭愁殺人). 고향 마을로 되돌아가고 싶지만(思還故里間) 가고자 해도 길이 없다(愁歸道無因)”라고 불러서 백양비풍(白楊悲風)을 실감나게 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귀소(歸巢)심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왕유(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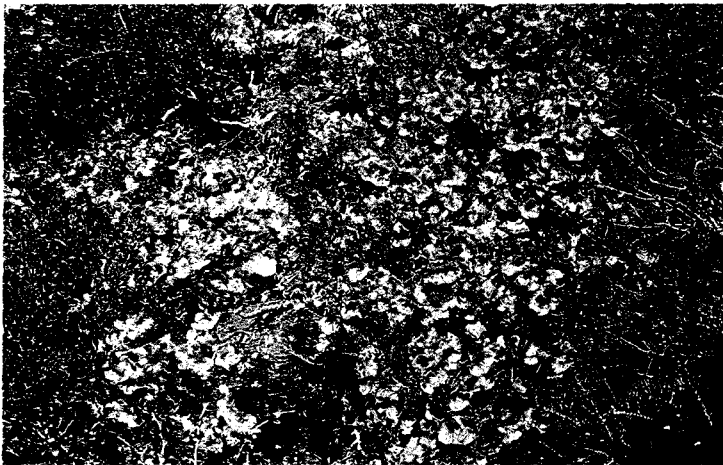
維)도 “너 고향에서 왔다지(君自故鄉來). 그렇다면 고향 소식을 알겠구나(應知故鄉事).”하는 것도 그것이다. 이백(李白)이 “고개를 들어 산에 오른 달을 바라보고(舉頭望山月) 고개를 떨구어 고향을 생각하노라(低頭思故鄉).”하는 것도 우리의 심정을 울리게 한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지금도 나의 서재에 내가 어릴 때, 자라난 고향 마을의 사진을 걸어 두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정서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2 두견새와 두견화

진달래를 ‘두견화’라 하는데 얽힌 전설은 흥미라기 보다는 어떤 실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중국 촉나라의 임금 두우(杜宇)의 호는 망제(望帝)였는데, 그는 왕의 자리를 별령(鼈靈)에 넘겨주었다. 별령은 형주(荊州)라는 땅에 있는 우물 속에서 나와 촉나라의 망제에게 택함을 받아서 재상의 자리에 올랐고, 끝내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전설상의 사람이다.

“망제는 그 뒤 세상을 피하고(望帝自逃)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다(後欲復位不得). 그래서 그는 죽어서 두견새로 화했다(死化爲鵑). 해마다 봄이 오면, 밤낮 슬피 울어(每春月間晝夜悲鳴) 촉나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망제의 혼이라(我望帝魂

▼구상나무 옆에 핀 철쭉. 한라산 백록담. 1974. 5. 27



也)”라고 말했다 한다. “두견새가 와서 울제 봄은 적막하구나(蜀魂啼來春寂寞)”하는 것은 두견의 노래는 슬픔을 자아내게 한다. 밤낮 울고, 울다 보면, 목이 터져서 피를 토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곳의 진달래꽃을 물들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어 보고 싶은 심정이다. “두견새 천 년을 두고 아직껏 누구를 원망하는고(蜀魄千年尙怨誰) 울음마다 울음마다, 피를 토해서 그 피가 꽃가지 위에 떨어진다(聲啼啼血開花枝)”는 시가 그것을 말해 준다. 두견은 ‘왜 우는가?’ 두견은 망제의 녀이 화해서 된 새이므로 그 울음은 인간에 호소하고 파고드는 그 무엇으로 보아야 한다. “두견새의 울음 울음, 하나 하나 모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파고들고 있는(蜀魄聲似告人) 느낌이라”하는 시의 구절은 우리를 실감의 세계로 몰아낸다.

백거이(白居易)의 비파행(琵琶行)에 두견새가 등장한다. 비파행은 유명한 당시로서 필자는 열 살을 좀 지나서 이 시를 배웠다. 백거이 나이 45세 때 지은 시로서 전부 6백22자. 좀 길다. 백거이는 서기 815년에 좌천이 되어 구강군(九江郡)의 사마(司馬)로 되었다. 이듬해, 가을, 그는 손님을 보내는 나루터에서 배 안에 어떤 여인이 비파 타는 소리를 듣는다. 그 가락이 “쟁쟁연(铮铮然)하였다”고 한다. 주인공의 신분을 물

었더니, 그는 지난 날, 서울인 장안의 노래하는 여자였으나 나이를 먹자 화려했던 자리를 물러나 장사꾼의 처로 되었다.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몇 곡을 비파로 탄다. 그 가락이 그의 생애를 노래했다. 백거이는 크게 느끼고, 충격같은 것도 받아, 길게 비파행으로 만들어 그 여자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했다. 그 안에 “두견새는 피를 토하면서 울고, 원숭이 또한 슬피 운다(杜鵑啼血猿哀鳴). 봄 강물에 이웃해서 꽃 피는 아침, 달뜨는 가을 밤(春江花朝秋月夜) 때로 술을 들고, 다시 술잔을 홀로 기울이노라(往往取酒還獨傾). 어찌 산에 노래가 없고, 마을에 피리 소리가 없겠는가만(豈無山歌與村笛), 들을 만한 것이 못된다(難爲聽). 오늘 밤 그대의 비파의 노래를 들은 즉(今夜聞君琵琶語) 선악을 듣는 듯 귀가 잠시 밝아진다(如聽仙樂耳暫明). 사양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한 곡

을 타 줄 것을(莫辭更坐彈一曲) 그대를 위해서 나는 비파행의 노래를 지으리라(爲君翻作琵琶行). 그곳 모든 사람이 그 가락을 다시 듣고,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 좌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은 바로 강주의 사마인 나로서 푸른 저고리를 다 적셨노라(江州司馬青衫濕).”하는 것으로 끝이 된다. 한 노기(老妓)의 생애를 말하는 비파곡에 위대한 시인이 온통 울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 볼 만한 점이다.

두견새, 소쩍새의 시로 단종 임금의 작품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淸令浦) 숲속으로 몰려난, 단종은 그가 떠난 궁궐을 회상하면서 소쩍새 울 때면, 함께 울어 목에서 피를 토했을 것이다. 단종은 초봄, 두견새 울고 진달래, 철쭉 피어날 때, 함께 피를 토하면서 지상 최대의 비극을 실감하면서 눈물로 앞을 가

▼진달래로 불타는 도봉산. 1984. 4. 15





▲색채의 예술인 진달래꽃. 도봉산. 1984. 4. 15

리지 못했을 것이다.

단종은 그곳에서 ‘두견새의 시(자규의 시)’를 지었다. 영월에서도 두견새의 피로 진달래는 물들었다고 단종 임금은 노래하고 있다. 그 시를 들어본다.

일 자 원 금 출 제 궁
고 신 척 영 벽 산 중
가 면 야 야 면 무 가
궁 한 연 년 한 불 궁
성 단 호 잠 잔 월 백
혈 류 춘 곡 낙 화 홍
천 룡 상 미 문 애 소
하 내 수 인 이 독 총
一 自 冤 禽 出 啼 宮
孤 身 隻 影 碧 山 中
假 眠 夜 夜 眠 無 假
窮 恨 年 年 恨 不 窮
聲 斷 曉 峯 殘 月 白
血 流 春 谷 洛 花 紅
天 壘 尚 未 聞 哀 訴
何 奈 愁 人 耳 獨 聽

이 시를 풀이해 보자.

한 마리 원통한 새가 궁을 나와
외롭게 푸른 산 속에 갇혔다.
밤이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한은 해마다 쌓여만 간다.
두견새 울음 다하고,
남은 달이 희다.
피 흘린 골짜기, 붉게 꽃잎
지고,
하늘은 아직 이 호소를 듣지
못했는가.
어찌다 수심에 잠긴 나만,
귀가 밝은가.

이 시에 “두견새 울어 산골짜기 진달래꽃 붉게 떨어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다. 그 꽃이 피어난다. 또는 피어났다고 하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는 표현은 남아있는(殘) 달에 대조시킨 것이지만, 뛰어난 표현으로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 단종은 청춘을 맞이하기도 전에, 영월에서 두견새의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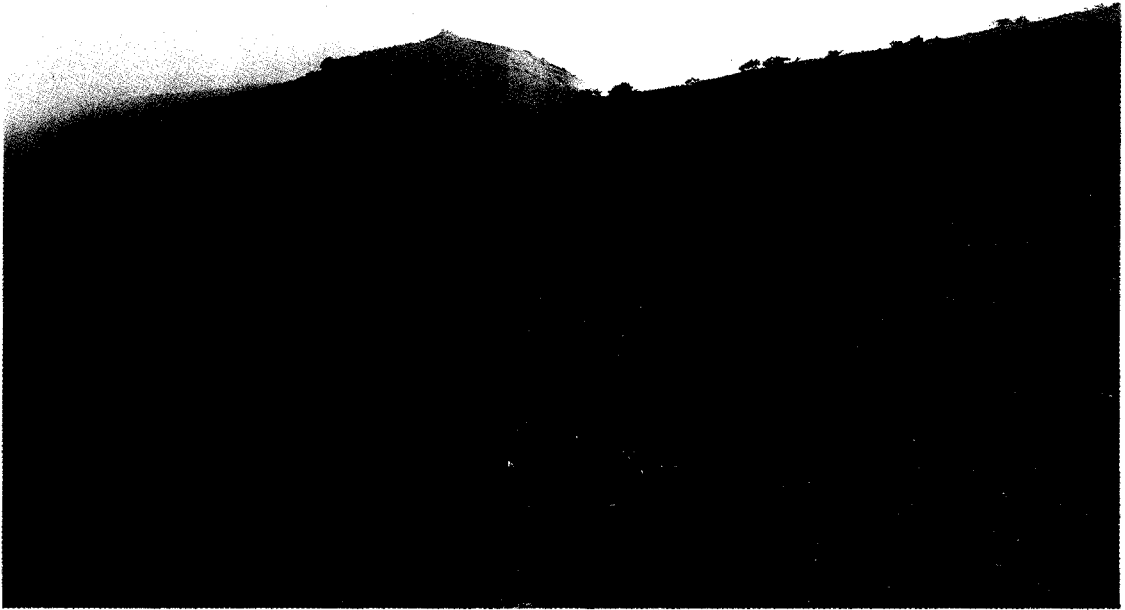
앞에서 솔바람 이는 진달래 밭에서 생애를 끝냈다. 필자가 어릴 때, 소쩍새 우는 때이면 아버지께서 밤 중에 담뱃대를 벗삼아 이 시를 풀이하시곤, 단종에 대한 연민의 정을 보내셨다. ‘자규시(子規詩)’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길게 길게, 끝내 남아서 무엇이 권력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비극이고, 무엇이 영화인지를 알려 줄 것이다.

창 밖에 찾아 온 새에게 산 속의 풍속으로 진달래꽃 소식을 물어보는, 다음 여류시인의 시도 좋다. 10살 어린 나이 때 지은 시라고 한다.

창외피제조 窓外彼啼鳥
하산숙갱래 何山宿更來
응식산중사 應識山中事
두견개미개 杜鵑開未開

창 밖에서 우는 새야.
어느 산에 지내다 왔노.
응당 산 소식을 알겠구나.
진달래꽃은 피어 있는가.

이쯤 되면 새는 분명히 진달래의 꽃 소식을 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부분이 시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은 시를 감상하는 사람에게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도 좋다. “고향의 매화꽃이 피어 있는가?”하는 유명한 시도 끝마무리가 없는게 그것으로 족하



▲소백산 비로봉 근처의 풀밭에 나 있는 철쭉. 1983. 6. 25

다는 것이다.

“두견새는 철쭉꽃 필 때에도 운다”는 시의 대목이 있다. 진달래의 붉음도 그러하지만, 철쭉의 붉음도 두견새 때문인가? 이백(李白)의 시에 “버들꽃 다 떨어지자, 두견새 운다(楊花落盡子規啼).”는 대목이 있다. 버들꽃이 지면 그때는 철쭉이 필 때이다. 그 때 도 두견새 울었으니, 철쭉꽃의 붉음도 두견새에서 온 것으로 보자. 두견새는 “돌아가고 싶다(不如歸)”하면서 운다고 한다. 돌아갈 수 없는 유배된 몸을 ‘벌여귀’로 노래한 시인이 있다.

두견새는 “돌아가야 해(不如

歸)”하면서 울고 그리고 자고(鷓鴣)라는 새가 ‘가서는 안돼(行不得)’하면서 운다고 한다. ‘뛰어난 재주와 명성은 북두와 태산같이 높은데(才名眞與斗山齊) 중서(中書)와 함께 밥이나 함께 먹는다고 오늘 하루 해도 저물어가네(伴食中書日又西) 고개를 돌려보니, 상강의 봄풀이 푸르네(回首江春春草綠) 자고새는 ‘가서는 안된다’ 하면서 울고, 자규새는 ‘돌아가기만 못해’ 하면서 운다(鷓鴣啼罷子規啼)”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영화를 탐내어 몰러설 줄 모르는 자에게 경종을 주는 뜻을 안고 있다. ‘반식중서(伴食中書)’란 손님과 식사 정도 쯤 하는 무

능한 재상(宰相)을 비웃는 뜻을 안고 있다.

때로 두견새의 울음은 듣고 싶은 좋은 가락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그것은 일본인의 고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에서 들어본다.

3. 호도도기스의 노래

두견새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인간의 상(像)에는 종류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성격에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일본에는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막부(幕府)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일본은 천

환제이다. 지난 날, 가마꾸라(鎌倉), 무로마찌(室町), 아쓰지모모야마(安土桃山), 애또(江戸) 시대에는 천황을 제쳐 두고, 무인들이 나라의 실권을 잡아 정치를 했다. 이 시대가 바로 막부(幕府) 시대이다. 막부시대의 인물로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그리고 도쿠가와이에야스(徳川家康)가 있음은 일본역사에 조금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겐 알려지고 있다. 이 세 사람 장군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견주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두견새가 피를 토해서 물들었다는 진달래. 북한산. 1985. 4. 9

오다는

なかねば ころしで しまえ
ほととぎす
울지 않으면, 죽여 버리라.
두견새를.

도요도미는

なかねば なかしで みせよ
ほととぎす
울지 않으면, 울게 하리라.
두견새를.

도쿠가와와는

なかねば なくまで まどう
ほととぎす
울지 않으면, 울 때를
기다리리라. 두견새야.

여기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장군은 도쿠가와였고 실패적인 장군은 오다였다. 무엇이든지 느긋하게 참고, 견디고, 순리를 좇아

야 된다는 생활의 이치를 말해 준다. 세 사람의 행동, 결단 등이 위에 말한 두견새를 대하는 그러한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급한 성격은 어디에 가나 어느 때에나 실수를 잘 부르게 된다.

‘두견새의 노래가 듣기 좋아서, 이러한 비유의 단시(短詩)가 만들어졌는가!’

4. 소백산의 철쭉 밭

1980년대 초, 어느 늦은 봄날 짙은 짙은 소백산을 올랐다. 소백산 최고봉인 비로봉은 해발 1,439m, 정상 가까운 곳에 완만한 경사의 철쭉 밭이 전개되고 꽃을 달게 될 때 장관을 이루게 된다. 군데군데 에델바이스가 꽃 핀 벌판에 앉아, 그 평원을 내다보는 기분은 무언가 광활한 것으로 가슴을 열어 주는 것을 느끼게 했다.

저 아래쪽 산골짜기에서 한 덩어리의 구름에 상승기류를 타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온다. 어느 사이엔가 이 구름은 나를 에워싸고, 계속 높은 곳으로 간다. 이 때 그것은 구름이 아니고 짙은 안개이다. 잠시 후, 이 안개 덩어리는 우리를 떠나 비로봉으로 올라간다. 그것을 쳐다보면 이미 안개가 아니고, 흰 구름의 몽치이다. 이러한 구름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이어서 이어서 올라오고 있다. 축축한 기운이 철쭉 밭을 스다듬다가 또 하늘로 날아간다. 바다가 보내 온 선물인 수증기가 이곳을 찾아와 온갖 꽃들과 나무들을 자라게 해 주는 고마움이 지금 막, 이 꽃 들판에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스러운 펼쳐짐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이곳을 찾기 이전, 수백만 년 보다 더 먼, 지난날에도 이러한 광경은 있었

지 않았을까?’하고 명상에 잠긴다. 호랑이가 자주 지나다니던 이 산능선에는 지금 이십세기 후반의 산물들이 찾아들고 있다. 나는 다음의 글을 엮어 보았다.

쏟아져 무더기로
무더기로 쏟아져,
별이 쏟아져.
진달래 밭 소백산.
흘러 흘러 강물처럼,
세월이 흘러.
햇볕 바래는 언덕.
신화는 강물 따라,
흘러 버리고.
원시는 바다로 갔다.
끓어 올라, 피어 올라
바다의 마음.
흘러 흘러 안개로
안개로 흘러 흘러.
무지개 타고 온,
내 고향 진달래 밭.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수만 년 피고 지고.
아스라 아스라.
내 고향, 진달래 밭.
힘찬 길, 귀족도.
귀족도 힘찬 길.
빠꾸기 우는 길.
꽃이 피는 길.

이 때 나는 철쭉 밭으로 표현해야 더 옳았을 것이다. 어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진달래로 해 두었다. 사실 소백산 주변의 백성들은 철쭉을 진달래로 흔히 말한다. 이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해 둔 적이

있다. 소백산의 철쭉 밭은 ‘아름다운의 극치’라고 보아도 좋다. 창조주의 작품으로서 뛰어난 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6월쯤 철쭉이 필 때에는 이곳에서 철쭉제가 치러진다 하는데, 그러한 제전은 저 아래쪽, 학교 운동장쯤에서 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수많은 사람이 산으로 몰려들다 보면 산의 풀과 나무가 상하기 쉽다.

일본에서는 이만한 진달래 밭 또는 철쭉 밭이 있으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소백산에는 주목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소백산에는 고산식물의 평원 신갈나무 숲, 함박꽃나무의 벌판 등 보호하고 싶은 생태계가 많다. 훗날 이러한 곳은 보호의 대상 구역으로 될 것으로 안다.

이처럼 소백산의 철쭉은 명품이다.

한라산의 철쭉 밭, 설악산의 철쭉 밭 또한 좋다.

5. 수로부인(水路夫人)과 철쭉

필자는 이미 나무백과 3권 진달래에서 ‘수로부인과 헌화가(獻花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진달래에 곁붙여서 하는 것이 옳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대목을 진달래가 아닌 철쭉으로 선배들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에 철축(鐵軸)이라 했으니, 마땅히 철쭉으로 하는 것이 옳다. (즉 높은 곳에 철축(철쭉)이 만발하고 있었다(上有鐵軸花盛開)하니, 그러하다.) 이 곳에 삼국유사의 수로부인조를 인용해 본다.

“신라 선덕왕 때, 순정공(純貞公)이 강원도 강릉 태수(太守)로 부임해 가는 도중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곁에 돌산이 병풍처럼 깎아서 있었고 그 높이가 천 길이나 되었다. 그 돌산 높

▼무더기로 피어나기를 즐기는 진달래. 북한산. 1985. 4. 9





▲화전놀이 재료가 되는 진달래. 도봉산. 1984. 4. 15

은 곳에 철쭉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이 때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가 좌우를 돌아보면서 ‘누가 저 꽃을 꺾어 오겠는가?’ 하니, 시중 드는 사람들이 ‘산이 너무 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 때 마침 암소를 끌고 그곳을 지나던 한 노인이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 노래와 함께 바쳤다는 것이다.

그 뒤 수로부인은 계속 동해안의 길을 따라 강릉으로 가다가 바닷용(海龍)에 붙잡혀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수로부인의 미모가 뛰어난데 있었다 하고 신라인들은 여자의 육체에 무척 관심을 두었다.”는 풀이를 읽을 수 있다. 바닷속의 용도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곤 했다. 수로부인은 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으로 해서 수차 신들에게 잡혀간 적이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여자는 아름다운

꽃, 철쭉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게 ‘수로부인 헌화가’의 줄거리이다.

6. 철쭉은 척축에서

철쭉을 한자로는 “척축(躑躅)으로 쓴다”고 했다. 척축은 중국에서 옛적부터 쓴 나무 이름이고, 이시진의 ‘본초강목’이란 책에서는 관목(灌木)류나 화목(花木)류에 넣지 않고, 초류(草類) 중 독초에 넣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색다르다. 척(躑)자나 축(躅)자나 모두 ‘머뭇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갈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사전에 보면 척축이란 발로 땅을 치는 모습(以足擊地也)를 뜻하는가 하면 갔다왔다하는 망설임도 나타낸다.

또 척축이 나무 이름으로서 철



▲철쭉꽃을 단 가지(왼 쪽) 열매를 단 가지(오른 쪽) (그림출처 : 나카이, 조선삼림식물편)

쪽으로 뜻하는데 철쪽꽃에는 독이 있다고 했다. 본초강목에는 양척족(羊躑躅)이란 제목 이름 아래 설명을 하고 있다. 즉 ‘꽃에는 강한 독이 있고, 또 양이 그 잎을 먹으며 발로 땅을 치면서 죽는다고 했다(羊食其葉 躑躅而死). 그래서 철쪽은 양불 식초(羊不食草, 양이 먹지 않는 풀)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또 양이 철쪽을 보면 뛰어서 달아나는데(躑躅放散) 그래서 ‘양척족’이란 이름을 붙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초강목에는 부록으로 ‘산척족(산철쪽? 山躑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꽃에 독이 없고 맛은 시다’고 했다.

3월 3일에 하는 화전(花煎)놀이 는 진달래꽃을 따서 찹쌀가루에 이겨 참기름으로 지진 것을 먹는 봄의 행락 중 가장 멋있고 운치있는 것이었다(白粉淸油煮杜鵑). 산마루에서 진달래꽃을 요리해서 먹는 맛이란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 일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즈음 이러한 세속을 멀리하는 꽃 문화는 점점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산척족의 꽃은 응달을 즐기고, 비옥한 땅을 싫어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 잘 자라며 꽃색에는 변이가 있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철쪽의 원래의 한자명은 ‘양척족’이었으나 지금 우리는 ‘양(羊)’자는 빼 버리



▲철쪽의 꽃봉우리. 관악산. 1997. 4. 20

고 ‘척족’ 두 자만으로 나타내고 있다.

정태현 박사의 도감에는 “산철쪽(山躑躅)을 설명하고, 한자명으로 양척족(羊躑躅)으로도 한다.”고 했다. 이것을 우리말로 양(羊)척족 또는 산철쪽으로 말한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철쪽이라든가 척족이란 명칭은 여러 종류를 포함시켜서 말하는 총명(總名)적인 성격도 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척족을 바탕으로 해서 철쪽이란 명칭을 만들었고, 이 철쪽이란 말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으로 건너갈 때, ‘척족(躑躅)’이란 한자명은 함께 따라가지는 못했고 우리말 ‘철쪽’이 먼저 건너 가서 일본 명칭 ‘쓰쓰지’로 되고, 그 뒤 척족(躑躅)이란 한자명이 일본으로 건너 가, 사후에 ‘쓰쓰지’에 연결된 것이라 한다. 그것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시집

인 ‘만엽집(萬葉集)’에 ‘쓰쓰지’라는 일본 명칭에 주어진 한자명은 사자(乍自), 관자(管自), 관사(管士), 도추자화(都追慈花) 등으로 나타나고, 읽기는 모두 ‘쓰쓰지’였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척족(躑躅)이란 한자명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척족이란 용어가 있기 이전에 우리말 철쪽이 일본말 쓰쓰지의 어미말로 되었다는 추측은 높은 합리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대부터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일본말의 유래를 탐색할 경우 한정이 있는 일본말을 억지로 갖다 붙여 그럴싸하게 어원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문자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훨씬 전에 이미 수많은 한국말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말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인식하기 때문이다. ‘쓰쓰지’ 그것은 원래 우리말이었다.



▲철쭉의 어린 잎. 관악산. 1997. 4. 20

7. 영산홍

1950년대 중반쯤 나는 누군가에게서 보내온 영산홍을 재배한 적이 있다. 매우 아름다운 붉은 꽃을 다는데, 그 때 ‘영산홍’은 일본에서 들어온 진달래의 일종이라고 들었다. 영산홍은 한자로 映山紅이라 쓰는데 “이 꽃이 산에 필 때에는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고 해서 얻은 이름이라고 한다.

영산홍은 홍철쭉(紅躑躅)으로도 쓰고,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기리시마’로 읽는다. 기리시마는 철쭉 속의 한 종으로 되어 있다. “영산홍이 산에 많이 피어나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일본에는 있다. 중국의 ‘본초강목’에는 진달래와 영산홍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것으로 일본의 ‘삼재도회(三才圖會)’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즉 “영산홍의 잎은 좁고, 길지 않고, 더 둥근편”이라 했다. ‘기리시마’

의 설명을 보면 “잎은 상록성이고 추운 지방에서는 반낙엽성”이라고 했다. 꽃이 5월에 핀다고 했는데 진달래보다는 꽃 철이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강희안의 ‘양화소록’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우리 세종 임금 23년(서기 1441년), 봄에 일본국에서 철쭉 두어 분을 공물로 보내왔다. 주상(主上)께서는 이것을 대궐 안에 심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 꽃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한다. 다른 철쭉에 비교하면 막모(嫫母)와 서시(西施)와 같았다. 막모는 황제(皇帝)의 넷째비(妃)인데 추녀의 대명사로 되어 있고, 서시는 중국 월나라의 미녀인데 나무장사의 딸이었다. 월나라 왕, 구천이 회계싸움에 지고 나서 서시를 부처에게 보내어 그의 정치를 어지럽게 했다고 하는 고사가 있다. 영산홍은 서시의 아름다움에 견주어졌다. 땅에 심은 것은 그 꽃이

필 때에는 홉꽃이고, 꽃색은 석류꽃에 닮았다.”고 했다. 그때의 영산홍이 과연 어떠한 식물종이었는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쓰기를 “영산홍은 나무의 이름이다. 꽃이 피기는 두견보다는 뒤지고 철쭉보다는 이르다. 그리고 나무는 철쭉보다 높고 크다. 지금 남쪽 지방에 많이 있다. 두견화(진달래?)를 가지고 영산홍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이 서술을 보면 영산홍은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산림경제에 왜철쭉(倭躑躅)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양화소록’을 인용한 것이다. ‘빙허각 규합총서’에도 왜철쭉을 설명하고 있는데, 산림경제의 내용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다만 “한 꼭지에 꽃 여러 송이가 피었거든 한 꼭지에 두어 송이만 남기고 다른 것을 떼 없애야 꽃이 크고 쉬이 늙지 않는다.” 한 것은 과학성 있는 서술이다. 그리고 진달래에 대한 설명은 흥미있다. 즉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 흙을 붙인 채로 떼어서 심지만 그 꽃을 피게 하면 이듬해에 가서 죽기 쉽다. 봄에 심을 때에는 봉오리를 따 없애고 심는다. 이 때 가을 보리를 뿌리 밑에 놓으면 흰 진달래가 피게 된다.” 이처럼 흥미 있는 대목이 있다.